



제니스가 2021 년 비바테크에서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G381 을 선보이며 빈티지 워치로 구성된 제니스 아이콘 컬렉션의 온라인 부티크 공개를 시작합니다.

2021 년 6 월 17 일 - 제니스 아이콘 테마 컬렉션은 르 로클의 제니스 매뉴팩처에서 공급 및 복원되어 인증 과정을 거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빈티지 워치로 구성된 컬렉션입니다. 상하이 및 긴자의 부티크에서 첫선을 보인 컬렉션을 이제는 유럽, 일본, 미국의 제니스 온라인 부티크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는 컬렉션을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골드 소재의 초기 엘 프리메로 모델, G381 을 손상 없이 깔끔한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이번주 초 파리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및 기술 이벤트인 **2021 년 비바테크(VIVATECH)**가 개최되었습니다. 제니스 또한 LVMH 및 여타 그룹의 메종과 함께 참여해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공개된 G381 은 순환 경제를 향한 제니스 매뉴팩처의 접근 방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명한 테크니컬 브랜드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여러 연사와 함께 제니스 CEO 인 **줄리앙 토나레(Julien Tornare)** 또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올해 비바테크 전시회의 핵심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예전 제품을 복원해 내는 제니스 매뉴팩처의 독보적인 기량과 타임피스가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자원, 부품, 노하우를 통해 복원된 제니스의 빈티지 모델은 제니스의 인증받은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제니스 온라인 부티크에서 독점으로 공개되는 최신 제품은 역대 가장 탁월한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 프리메로 전통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 작품인 **G381** 은 1969 년에 엘 프리메로를 장착한 최초의 골드 모델로 출시되었으며, 아이코닉한 A386 의 골드 버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고주파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초기 버전을 그대로 재현한 타임피스이기도 한 시계에는 둥근 케이스와 소수 스케일 및 타키미터 스케일이 동일하게 장착되었습니다. 제니스에 큰 성공을 가져다준 모델이었던 G381 은 1969 년부터 1972 년까지 소량으로 여러 번 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도합 1,000 피스가 제작되었습니다.

독특한 G381 이 진정으로 탁월한 타임피스인 이유는 시계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상태 또한 제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1971 년에 만들어져 1972 년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제니스의 상점에서 판매된 이 G381 은 한 번도 착용되지 않았습니다. 제니스 매뉴팩처의 헤리티지 부서에서 이 제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케이스백을 보호하는 페인팅은 깔끔히 유지되어 있었으며 브레이슬릿의 왁스 씬과 제품 태그 또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무브먼트 감정 결과, 시계를 구동하는 부품에서도 흠이나 마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매일로부터 50 년이 지나 제니스 매뉴팩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G381 모델에는 세상의 빛이 전혀 닿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이 진귀한 엘 프리메로 모델은 6 월 21 일 **제니스 아이콘** 온라인 부티크에서 가장 먼저 공개됩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시계 애호가들은 워치메이킹계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타임피스를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니스: 별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 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와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과거와 현재의 선구적인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고 2020 년 이들을 위해 최초로 데피 미드나잇을 제작하며, 이러한 선구적인 여성에게 주목합니다.

길잡이별을 따라 혁신을 거듭하는 제니스는 뛰어난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선보입니다. 제니스는 1969 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한 이후, 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와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데피 21 을 통해 눈 깜짝할 순간의 시간을 마스터했습니다. 제니스는 1865 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별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